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4월호
Apr. 2010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한인회 소식]

1. 지난 2월 28일 정월 대보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여 답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에 한국과 미국 전 주에 뉴멕시코주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전 개그우먼 이옥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곧이어 발행되는 한인업소록과 기타 뉴멕시코주를 알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2. 순회영사 업무가 오는 4월 10일(토) 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오전 11시 - 오후 4시
◇업무: 여권갱신(양쪽 귀 보이는 사진 2장 필요, 전자여권은 10년이오니 기한이 1년 정도 남아있어도 갱신하기를 권합니다), 비자발급, 재산포기, 거주확인 그 외 등등.

양식은

<http://usa-losangeles.mofat.go.kr>에서 내려 받으십시오.

3.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원국적차별에 대한 회의가 4월 15일(목) 1시 30분 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매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조사 Sensus가 3월 19일-4월 19일까지 실시됩니다.

기간 중 한인회관을 매주 수요일 12시-4시, 목요일 9시-4시까지 오픈하니 이용 바랍니다.



[어버이회 소식]

1. 정월대보름잔치 (2월 25일)
음식후원 아리랑, Charlie Lee 내외분
어버이회원님들께 선물후원.

2. 4월 22일 목요일 어버이회 모임
당일 온천여행 원하시는 분은
문의바랍니다. (271-1777)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NMKLS)

봄을 맞아 4월에는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성을 다해 마련하신 점심을 다 같이 맛있게 나누어 먹고 에그 헌트, 에그 레이스, 윷놀이 등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원 옆 갈릴리 장로교회의 시설을 쓰게끔 허락해주시고 문 열어주신 류종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To Celebrate the Spring, NMKLS held our annual picnic in April at a nearby park. Everyone brought a yummy dish to share for lunch, and we played many, fun games such as Egg Hunt, Yutnori and Egg Race. We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for participating and helping to plan another beautiful event. A special thanks goes out to Rev. J. Yoo who opened the doors to his Galilee Presbyterian Church, allowing us to use the facilities



End of Year Presentation & Potluck

- 날짜 Date: 2010.05.15, 토요일
- 시간 Time: 10:00 AM - 12:00 PM

5월 15일(토)에는 학예발표회와 종강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행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NMKLS is hosting End of Year Presentation and Potluck on Saturday, May 15th, 10 AM - Noon.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come see and celebrate what our students have achieved this school year.

여름방학 미술캠프 (유치원 - 8학년)

Spring Break Art Camp (K - 8th) NEW!

여름방학 미술캠프 학생을 모집합니다. 6월 25일까지 등록해주시시오. 6월 4일전에 등록하시면 \$25 할인해 드립니다.

NMKLS Summer Art Camp is open to all students. Please register by June 25th to guarantee a spot. Please register early by June 4th for a \$25 discount.

- 2010.07.19 - 2010.07.23 Session I: Sculpting 스퀴팅
- 2010.07.26 - 2010.07.30 Session II: Print-making 프린트-메이킹
- 시간 Time: 09:00 - 12:00
- 수업료 Tuition:\$125 + 재료비 materials fee / 세션당 per session

한글수업 안내

Korean Class Information

- 2010년 경인년 "한국어 사랑"캠페인 - 수업료 \$100
- 2010 "Love for Korean" Campaign - Tuition \$100

청소년/ 성인 한국어 회화반

Youth / Adult Conversational Korean Classes

- 수요일 Wednesdays, 6:30 - 8:30 PM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 토요일 오전 Saturdays, 9:15 AM - 11:15 AM

미술반(만 4살 - 12 학년)

Art Classes (Pre-K to 12th Grade)

-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한국학교 인터넷 게시판

NMKLS Info on Internet

한국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은 www.kaanm.com ("Korean School" 을 눌러 주세요)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and updat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kaanm.com (click on the "Korean School" tab).

연락처 /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내용 Contents

한인회 소식 / 어버이회 소식 ▷ p.1

한국학교 소식 ▷ p.2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 p.4

제비와 벌새 ▷ p.6

Pioneer Protestant Missionaries ▷ p.7

바보 의사 이야기 ▷ p.8

종교 소식 ▷ p.10

시詩처럼 고운 우리 음식 ▷ p.11

뉴멕시코 한인업소 ▷ p.14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뉴멕시코 관광안내]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이경화 장로

신비롭게 하얗고도 하얀 모래언덕! 마치 눈 같이 희다고 할지, 흰 설탕 같이 하얗다고 해야할지? 흰 모래의 높은 파도가 물려오는 듯한 경치를 볼 수 있는 화이트 샌드(White Sands)는 뉴멕시코주 남쪽 알라모고르도(Alamogordo)시 근처에 있다. 일 년 동안 이 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는 40만에서 60만명 사이로 뉴멕시코주에 있는 모뉴먼트(Monument) 공원 중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곳이다. 지질학자의 말에 의하면 툴라로사 분지(Tularosa Basin)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약 2억 5천만년 전에는 얇은 바다였는데 융기현상으로 고원지대가 되었고 동서양쪽의 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개울물에 녹아서 들어오는 석고(Gypsum)물질이 분지에 있는 호수로 들어와 바닥에 가라앉아 석고층을 만들었다. 가뭄으로 호수물이 증발되어 석고층이 많이 노출 되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석고 모래가 불려서 어느만큼 이동하다가 땅에 떨어져 모래 언덕을 만들게 되어 오늘의 흰 모래언덕을 만들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하면 보통의 모래가 아닌 석고모래라고 불려야 된다. 그런 까닭에 색깔이 신비로울 정도로 하얀 것이다. 이 언덕은 지금도 바람에 의해서 매년30피트정도씩 이동하며 언덕의 모양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한다. 모래언덕이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300평방 마일이 된다.



사진1: White Sands 에서 자라는 Yucca.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White Sands National Monument)로 가는 길은 뉴멕시코주의 남쪽에 있는 라스크루시스(Las Cruces)에서 간다면 70번 하이웨이를 타고 52마일 동북쪽으로 가면 된다. 이 길은 근처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가끔 있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경우 70번 도로를 한두시간 패쇄할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객은 도로상황을 미리 Visitor Center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문의:505-679-2599). 알버커키에서 갈 경우에는 I-25 고속도로로 소코로(Socorro)를 지난 후 38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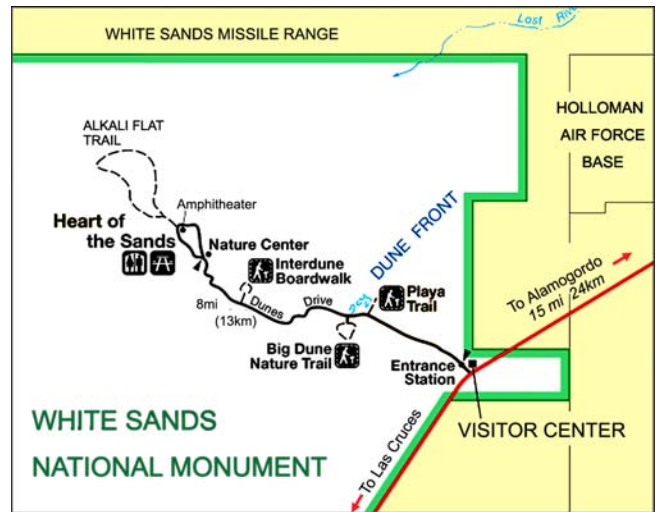


사진2: White Sands 공원의 약도

도로로 바꾸어 서쪽으로 가다가 Carrizozo에서 54번 남쪽 도로로 내려가 알라모고르도(Alamogordo)를 거쳐 70번 도로로 15마일 남서쪽으로 가면 Visitor Center에 이르게 된다. 알버커키에서 공원까지 226마일되는 거리다. (사진 2) 만일 Carlsbad Cavern을 구경하고 이곳을 방문한다면 경치좋은 82번 도로를 이용해서 알라모고르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공원의 개장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 여름철(2010년4월12일-9월11일)에는 7:00am-9:00pm이며 입구에 있는 안내소(Visitor Center)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다. 공원 안까지 8마일 드라이브해서 들어가면서 구경을 하게 된다. Dunes Drive라고 부르는 이 길의 종점 지점에는 넓은 주차공간과 피크닉 테이블들이 있다. 지붕이 있어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준다. 사진에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산책로를 걸으면서 모래언덕과 거기서 자라는 Yucca나 무를, 그리고 Sacramento, San Andres산을 배경으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아침이나 해지기 두 시간 전쯤이 사막풍경 사진 찍기에 아주 좋다. Big Dune Nature Trail은 1마일 정도의 쉬운 코스이며 Alkali Flat Trail은 사진 애호가에게 권하고 싶은 Trail로서 왕복 4.5마일이 된다. Trail을 벗어나서 구경할 경우에는 GPS나 나침반을 가지고 갈 것을 권하고 있다. 모래밭 안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The Vaughan Company REALTORS®

Albuquerque 거주 27년과 부동산 중개업
11년 경력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505-797-6820
핸드폰: 505-249-8686
팩스: 505-822-0734
무료전화: 800-727-3697

6703 Academy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09

어린이들은 모래언덕의 경사진 곳에서 썰매를 타고 즐기기도 한다. 접시모양의 썰매는 안내소에 있는 Gift shop에서 살 수 있다. 공원 안에는 유리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 물병으로 대신할 것도 유의할 사항이다. 입장료는 \$3이며 15살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다. 공원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상세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

□ 웹사이트 주소: <http://www.nps.gov/whsa>

1. 화이트 샌드 미사일 박물관

White Sands를 가는 길 또는 돌아오는 길에 들 수 있는 명소를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화이트 샌드 내셔널 모뉴먼트는 사실상 화이트 샌드 미사일 실험장(White Sands Missile Range) 안에 속해 있다. 미사일 실험장은 이 지역의 넓은 사막지대를 쓰고 있어 미 육군에 속한 기지 중 가장 큰 기지가 되고 있다. 1945년에 있었던 최초의 원자폭탄 폭발 실험도 이곳 안에 있는 Trinity Site에서 있었다. 화이트 샌드 미사일 박물관(White Sands Missile Museum)은 미사일 실험장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활동을 일반인에게 전시해주는 박물관으로 과학에 관심 있는 어린이에게 보여줄 만한 곳이다. 약 50종류의 로켓트와 미사일 모형이 박물관 앞마당(Missile Park)에 전시되어 있고(사진 3) 박물관 안에는 2차 대전 때의 V-2 로켓트에서 시작하여 여러 가지 로켓트 과학 자료를 전시하여 놓았다. 이 박물관으로 가려면 White Sands National Monument 입구에서 70번 도로로 약 30마일 남서쪽으로 내려가다가 Museum-Missile Park이란 안내판 있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4마일을 남쪽으로 내려가면 된다. Las Cruces에서 간다면 70번 도로로 약 19마일 동쪽이 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사진 3: White Sands Missile Museum Missile Park

□ 웹사이트 주소: www.wsmr-history.org

2. 뉴멕시코 우주항공 역사박물관

보다 폭넓게 우주항공분야에서의 뉴멕시코의 활동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Alamogordo 도시의 동쪽 산 밑에 있다. 이 곳 역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들러볼 만한 곳이다. 뉴멕시코 우주항공 역사 박물관(New Mexico Museum of Space History)이라고 부르는 이 박물관은 전시장으로 4층 건물이 있고 별관 건물에는 대형 스크린 IMAX영화관이 있다. 우주항공 또는 일반 과학분야의 좋은 프로

그램 두 가지를 교대로 매시간 상영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영화관 입장료는 성인은 \$6, 어린이는 \$4.50이다. 찾아가는 길은 54번 도로로 Alamogordo 시내에 들어간 후 New Mexico School for the Visually Handicapped가 있는 곳에서 Indian Wells Road로 들어서서 산 쪽으로 끝까지 가면 된다. (사진 4 참조)



사진 4: New Mexico Museum of Space History의 전시장에서 본 로켓트 모형

□ 웹사이트 주소: www.nmspacemuseum.org

3. Three Rivers Petroglyph Site



사진 5 : Three Rivers Petroglyph Site 입구의 간판.

현대과학과는 아주 대조적인 옛날 인디언 원주민이 남겨놓은 역사적 유물에 관심이 있다면 Three River Petroglyph Site를 둘러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곳 50에이커 지역에서는 서기 900년에서

1400년 경까지 살던 인디언들이 돌에 여러 가지 그림을 새겨놓았는데 동물, 새, 물고기, 곤충 등의 그림과 추상적인 무늬와 도형등 약 2만 개가 넘는 그림(Glyph)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약 3마일 되는 Trail을 걸으면서 볼 수 있다.



이 곳의 위치는 Alamogordo에서 54번 도로로 북쪽으로 약 30 마일지점에 있다. (사진 5, 6)

□ 웹사이트 주소: www.blm.gov/nm/st/en/prog/recreation/las_cruces/three_rivers.html

[에세이]

제비와 벌새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

제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흥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캐릭터다. 해마다 수가 겹치는 날인 삼짇날 어김없이 찾아왔다가 중앙절이 되면 강남으로 돌아가고는 해서, 우리의 풍속에서 영물로 대접받는 새다. 제비는 길조吉鳥라 처마 밑에 둥지를 틀면 집안에 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다. 암수 한 쌍이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네댓 마리의 새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행여 불안해하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멀리 피해 다니던 어릴 적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남북미주에서 볼 수 있는 벌새 hummingbirds도 우리나라의 제비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 벌과 새의 중간쯤에 있어서, 다 자라도 몸무게가 5 ~ 6그램밖에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다. 매년 4월 하순이나 5월 초에 찾아왔다가 9월 중순이면 멕시코 북부나 중앙아메리카로 돌아가 겨울을 난다. 색깔, 몸의 크기, 부리의 길이나 모양 등이 달라 무려 330종으로 나뉘는 벌새 중에 멕시코의 북부에서 관찰되는 것은 16종인데, 시속 95킬로미터로 날아 멕시코에서 캐나다를 거쳐 알래스카까지 4,000킬로미터를 옮겨 다니며 사는 것들도 있다.

춘삼월에 돌아온 제비는 적당한 곳을 골라 암수가 힘을 합쳐 둥지부터 튼다. 초가집 처마 밑 도리에다 지푸라기와 진흙을 침으로 이겨 붙이는 방식으로 둥지를 짓는다. 그 자리는 흔히 안방 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면 바로 눈에 띄는 곳이다. 시골의 초가집에는 다른 새는 물론 뱀처럼 새들에게는 무서운 짐승도 사는 수가 있어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여 저들이 안심하고 살 곳을 택하는 것이다. 흥부의 제비가 아니라도 사람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은 제비 집이 허술해 보이면 그 해에는 큰바람, 즉 태풍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짐작한다.

제비와는 달리 벌새의 수컷은 둥지 트는 일에 힘을 보태

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암컷 혼자서 부드러운 깃털, 이끼류, 지의류, 나뭇잎, 연한 풀잎 등을 모아다가 끈끈한 거미줄로 돌돌 말아서 두 갈래로 갈라진 나뭇가지, 선인장 줄기, 바위 시렁, 나뭇잎 등에 붙여놓는다. 이런 독특한 집 짓기는 한 번에 두 마리씩 부화되는 새끼들이 커감에 따라 둥지의 내부도 점점 팽창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지름이 고작 5센티미터인 컵 모양의 둥지를 찾는 일은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아서, 먼저 암컷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눈 여겨 본 다음에 주변을 살살이 뒤져봐야 한다.

제비는 더운 여름철 무성하게 번식하는 곤충을 먹고 산다. 몸집에 비해 날개가 길고 잘 발달되어 있어서, 빠르게 날아 날벌레를 잡는다. 바다사자나 돌고래들의 유연하게 헤엄치는 모습은, 두 갈래로 깊이 갈라진 공지를 자랑하며 우아하게 비상하는 제비를 연상시킨다. 마당을 가로지른 빨랫줄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 녀석들의 자태를 보는 것은 어릴 적의 한 즐거움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몸매가 아주 매끈하여 보기 좋은 사람을 '물 찬 제비' 라고 했을까. 제비가 낮게 땅을 스치며 날면 머지않아 비가 내리겠구나 짐작했다.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 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벌새가 봄에 한두 마리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서둘러 먹이를 만들어준다. 끓인 물 4에 백설탕 1의 비율로 녹인 설탕물을 저들의 긴 부리에 알맞게 만든 먹이통에 담아 나뭇가지에 메달아 두면, 근처에 둥지를 틀어 살면서 남쪽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이통을 찾아오는 녀석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앞 가까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설탕물은 아직 꽃이 만발하지 않아 넥타가 부족할 때는 그들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빨간색 바탕에 노란 꽃 모양을 한 먹이통 주위에 앉거나 날면서 긴 부리로 먹이를 먹는 귀여운 모습을 보려고 먹이통 여러 개를 내거는 사람도 많다. 넥타를 빨아먹는 사이 꽃들에게 가루받이를 해주기도 하는데, 넥타에 들어있지 않은 영양분은 날벌레나 거미를 먹어 보충한다.

철에 따라 규칙적으로 옮겨 다니며 사는 새가 철새다. 그 중에서도 제비의 이동 범위는 아주 넓다고 알려져 있다. 반드시 돌아오는 새들이라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녀석들을 기다리고는 한다. 그들을 다시 보는 순간 반가움과 함께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흐뭇해진다. 기다림에는 때로 소망 같은 것이 섞이기도 하여, 바라는 바도 저처럼 이루어지겠지 싶어지기도 한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대자연의 엄격한 질서를 깨닫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지혜를 터득하기도 한다. 제비는 우리속담에 수없이 등장하지만, 서양에서도 '제비 한 마리 보고 여름이라 생각하지 말라.' 는 말로 어떤 일에 신증을 기하지 않고 서둘러 판단해버리는 버릇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은 기상청이지만 그 전신인 국립중앙관상대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지방측후소와 함께 진달래나 개나리가 처음 꽃핀 날, 제비 처음 본 날, 종다리나 뽕구기의 울음소리 처음 들은 날들을 기록해왔다. 생물의 활동을 관찰하여 계절의 변화와 함께 기록해두면 먼 훗날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믿은 나머지 하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관상대에서는 1993년부터 생물 관찰을 그만두었다. 보고 듣기도 어려워진 터에 그런 기록이 훗날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으랴 싶어서였다고 한다.

사정은 그 후 더욱 나빠져서 지금은 제비가 아예 오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르고 지냈는데, 도회지에서는 종적을 감추었고 시골에서 관찰되는 개체 수마저도 급격히 줄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시멘트나 벽돌로 집을 짓는 도시에는 둥지 틀 곳이 없고, 농약과 살충제를 뿌려대는 시골에서는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수없는 세월 동안 되풀이해 온 일이라 옮겨사는 일이 생활의 일부이려면, 마땅히 집 지을 곳도 새끼들에게 먹일 벌레를 쉽게 구할 수도 없으니 저들인들 어찌 다시 찾고 싶으랴.

다급해진 문화재청과 조류학계가 제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것인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저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곤 하던 시기에 실태를 조사하여 멸종위기에 다다른 결과가 나오면 서둘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겠단다.

흑청색 윤기가 나는 등, 흰 배, 이마에서 위 가슴까지 검은 테로 둘러싸인 밤색 반점을 가진 제비들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나는 자태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왔다가는 시기마저 제비들과 똑같은 앨버커키의 철새인 벌새들의 깃털은 광휘와 우아함이 마치 보석이다. 그들 특유의 비상능력은 말 그대로 자유자재여서, 앞뒤로는 물론 헬리콥터처럼 위로도, 공중 맴돌기도 한다. 해마다 제철에 벌새들을 보면 나는 제비들을 떠올릴 것이다. 제비들의 여름 삶터가 예전 같아지기를 간절히 빌 것이다.

[Photograph]

Pioneer Protestant Missionaries Seoul/1887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Rutgers University



This rare early photograph includes several of the most prominent pioneer American Presbyterian and Methodist missionary families just a year or two after their arrival in Korea. At the far left in the top row is John W. Heron, the first appointed Presbyterian medical doctor, who died of dysentery in 1890, only five years after his arrival in Korea as a missionary. In the middle of the same row is Henry G. Appenzeller, the pioneer Methodist missionary educator, who established the first Western-style school in Korea known as the Paejae Academy. At the far right is William B. Scranton, the pioneer Methodist missionary, who perhaps is most remembered today for having brought his mother to Korea. In the middle row at the far left is Mrs. John "Hattie" Herron, who in 1892 became Mrs. James S. Gale following her husband's untimely death. To the right are Mrs. Ella Dodge Appenzeller, Mrs. William B. Scranton, and the

indomitable Mrs. Mary F. Scranton, the mother of William B. Scranton, who founded the school for girls that developed into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bottom row (left to right) are Annie Eilers-a Presbyterian missionary nurse who later transferred to the Methodist mission following her marriage to Dalzell A. Bunker-Horace G. Underwood, the first ordained Presbyterian missionary in Korea, who is most prominently remembered as the founder of the predecessor to Yonsei University, and (probably) Louisa S. Rothwilder, who worked with Mrs. Mary F. Scranton at Ewha and succeeded her as principal. The child standing at bottom center is most likely Augusta Scranton, the eldest daughter of Dr. and Mrs. William B. Scranton, who was a two-year old when her parents brought her to Korea in 1885. (Our thanks go to Professor Sung-deuk Oak of UCLA and Ellen Svea Swanson for their assistance in identifying several of the individuals in this photograph.)

The group is gathered on the front steps of what appears to be the first Underwood residence located in what today is known as the Chongdong district of Seoul.

This photograph captures the anomaly of the situation of these pioneer Protestant missionaries in a country that only recently had rescinded the ban on the entry of Christian missionaries. In time, life in Korea transform them as it did most missionaries. At this early point in their missionary career, however, they seemingly remain resolutely American even in a thoroughly Korean setting. (Missionary Photography in Korea)

[신앙인의 참모습]

바보 의사 이야기

장기려 박사는 우리나라 외과학회에서는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외과 전문의였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서민적이고 초라했다. 1995년 12월, 86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 복음 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근무했지만, 그에게는 서민아파트 한 채, 죽은 후에 묻힐 공동묘지 10평조차 없었다.

장기려 박사는 언제나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사셨다. 물론, 병원 원장이나 대학 학장으로서의 수당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월급이나 수당보다는 가불이 많았다. 여기에서 그의 수수께끼가 시작된다. 장 박사에 대해 떠도는 미신

에 가까운 풍문 때문에 전국의 가난한 수술 환자들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말기 암 수술 환자들이 부산 복음병원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겨우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들 대부분은 입원비와 약값이 없었다.

이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원장실이었다. 원래 잇속이 밝지 않아 셈을 잘 할 줄 모르고, 바보 같을 정도로 마음이 착한 장 박사에게 "시골 우리 집은 논도 밭도 없고 소 한 마리도 없는 소작농이어서 입원비나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환자들이 하소연하면, 장 박사는 그 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는 눈물겨워했다. 병원 비 대신에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겠느냐는 환자들의 제안에 장 박사는 환자의 치료비 전 액을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처리하고는 했다. 병원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 장 박사의 월급은 항상 적자였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병원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결국, 병원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앞으로 무료 환자에 관한 모든 것은 원장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부장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가난한 환자들이 장 박사를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결정

샌디아 La Luz Trail 산악회

샌디아 산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알버커키가 정이 든다는 증거이겠지요. 뒤뜰에 서서 바라만보아도 샌디아 산은 아름답게 우리 앞으로 다가 옵니다. 그런데 샌디아 산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웅장하기가 그지없고 올라가보면 시원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알버커키나 리오란초에 사는 우리에게 샌디아 산은 큰 자랑거리입니다.

샌디아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산을 오르면 몸에는 활력소를 얻고, 마음에는 평강을 얻으며, 자연 속에서 창조의 신성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동호인들 간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샌디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날자 :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장소 : La Luz Trail head

♣Hiking course: La Luz trail 5 마일 지점 까지 (왕복10 마일),
gain=1800 feet
혹은 산 정상 까지 7.2 마일 (왕복14.4 마일),
gain = 3600feet

♣준비물: 등산화, 물과 스낵 또는 점심을 넣은 daypack

♣연락처 : 최원길 (858) 248-1704

권을 박탈당한 이후부터 장 박사는 어려운 환자들이 생
기면 야밤에 탈출하라고 알려주고는 하였다. "내가 밤에
살그머니 나가서 병원 뒷문을 열어 놓을 테니 탈출하라."
는 것이었다. 장 박사의 이러한 '바보 이야기'는 일일이 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북녘에 두고 온 아내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
고 지낸 장 기려 박사는 평생에 걸쳐 묵묵히 사랑을 실천
한, 진실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이었다.

* 이산의 아픔 삭이며 희생과 봉사의 삶 살다간 참의사 *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만인 1950년 10월 19일 유
엔군과 국군은 평양을 탈환했다. 당시 김일성 의과대학
외과 의사였던 장기려는 대학병원과 야전병원에서 부상
병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해 12월 중공군이 개입하면
서 국군은 평양을 철수하게 되고 이 때 장기려를 남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를 야전병원 환자 수송용 버스에 태웠
다. 그것이 가족과의 45년에 걸친 긴 이별의 시작이 될 줄
몰랐다.

그는 언젠가 가족들을 만날 거라는 희망 하나로 부산에
서 피난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곧 다시 가족을 만날 거
라 했던 그의 바람은 길고 긴 분단의 세월 속에 묻혀버리
고 말았다. 장기려의 인생은 헤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
으로 바쳐진 사랑과 기도였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 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 해 평생을 바치겠다." 의사
장기려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항무지나 다름없던 우리 의
료계에 '가난한 사람도 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박애
정신의 꽃을 피워냈다. 그는 의사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
한 직업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명이라 생각했
다.

그래서 처음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장기려는 경성의전에 들어가
면서 이 하나님 앞의 약속을 생이 다할 때까지 지켜나갔
다. 평생을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펼친 의
학박사 장기려. 그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주
인공 '안 빈'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성자'로 불렸다. 이광수는 장기려를
가리켜 '당신은 聖 者 아니면 바보요'라고 말했다.

장기려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복에 있는 가
족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하루 2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았다.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 한국 최초
의 의료보험조합 설립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무료진료가
불가능하게 되자 장기려 박사는 1968년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 받자'라는 표어 아래, 북유럽의 의
료보험제도를 본 딴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탄생시켜
한 국 의료보험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때, 주변의 물이해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의 고통으로 시달림을 받는 것

으로도 슬픈데 가난한 사람에게 과중한 치료비를 부담시
킬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장기려는 한국최초의 의료보
험조합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 장기
려 박사는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 졸업하고
59년 국내 최초로 간대량(肝大量) 절제수술에 성공하는
등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 중 한 사람이었
다. 장기려는 한국 간 외과학의 창시자로 평가된다.

*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

장기려는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서 자기 돈으로 수
술을 해주었다. 자기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환자
를 야밤에 탈출시키기도 했다. 평양 시절 그의 부인은 장
기려가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아 의사가운과 환자복 샅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 갔다. 그는 평생 자기 집 한 칸 갖
지 않고 병원 옥상의 24평 사택에서 살았다.

* 다른 사람이 모두 만날 수 있을 때, 나도 가족을 만날 것이다 *

평생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산 장기려 박사.

그 자신은 분단 조국에 의한 피해자였다. 1.4후퇴 때 환
자를 돌보는 와중에 부모, 부인, 5남매를 평양에 남겨두
고 둘째아들만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 이산가족이 된 장
박사는 평생 재혼하지 않고 고향의 가족을 다시 만날 날
만 기다리며 살았다. 그런 그가 85년 정부의 방북권유를
거절하였다. 혼자만 특혜를 누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장
박사는 끝내 그리운 가족과 상봉하지 못한 채 95년 성탄
절 새 벽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임종을 앞 둔
1995년 10월 가족들에게 통일과 민족의 만남에 대해 "이
땅에서 지금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짧
게 만나느니 차라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나야지"라고
말하며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는 부산 시민상, 막사이사이상, 국제적십자상, 국민훈
장, 호암상등을 수상했다. 특히 그는 지난 95년부터는 당
뇨병과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상
오 청십자 병원에서 영세민 10여 명씩 진료해 주다가 그
해 성탄절 새벽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경기도 마석 모
란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장기려 박사의 비문에는 그분
의 유언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벗'임을 자처하며 기
독교 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칭송받은 사람이다. 그에게 붙은 '한
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라는 찬사에 한 점
도 부끄럼 없이 평생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었다.

* 예수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 *

절대빈곤시절의 '천막 무료진료' 부터 미래를 내다본
의료복지 정책인 '청십자 의료조합' 까지, 그것은 그의

'사랑'이 이뤄낸 기적이었다. 그는 예수처럼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살았다. 분단의 아픔을 환자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한 의사 장기려의 삶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출처: http://nurisarang.net/plus/board.php3?table=admin_b3&query=view&l=141&p=1&go=3

Gallup에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나바호 선교 사역 2년 5개월, 주님께서 드디어 나바호 선교목회를 허락하셨습니다.

Rock Springs NM에 위치한 Rock Springs Baptist Church에서 나바호 목회를 이번 부활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이름을 Grace Community Mission Church로 바꾸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나바호 및 전체 Native American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선교 및 목회 사역 중 Native American Prayer Center로 더욱 사역의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Late Rains Healing Mission

Missionary Pastor **조성현(Peter Cho)**
Tel (505) 870-9838
e-mail navajo9won@yahoo.com
www.navajolove.com

{종교 소식}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뉴멕시코주 한인 성결교회

최치규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9607 Menaul NE, Albuquerque, NM 87112
(408) 334-7227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에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전도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에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0:00 am (Sunday)

수요일예배 (Wed. Night Worship)

§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시詩처럼 고운 우리 음식

시심 詩心을 담아 아름다운 언어로 이름 지은 작품 같은 음식. 우리에게 이름만 들어도 그 맛이 궁금해질 만큼 멋과 풍류가 깃든 음식이 많다. 그 의미는 기도 祈禱요, 담음새는 그림이며, 이름은 고운 시 한 수다.

탱글탱글한 만두가 석류처럼 탐스럽다 석류탕



석류 모양으로 빚어 만든 만두국으로,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만들어 먹던 귀한 음식이다. 늦가을 붉은색으로 익어 입이 약간 벌어진 새침한 석류 열매 모양을 닮아 '석류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옛조리서 <음식디미방>에도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만두피를 속이 비치도록 얇게 밀어, 닭고기 다진 것에 여러 가지 채소와 양념을 섞어 작은 단자를 만들어 찌고 맛을 잡아 넣고 오므려서 석류 열매 모양으로 만든다.

* <음식디미방 飲食知味方>(1670년경)_한글로 쓰인 가장 오래된 음식 책으로, 경북 양양군의 안동 장씨 부인이 썼다.

우리 조상은 사철 자연에 순응하면서 제철에 나는 재료로 시절식을 즐기는 풍류를 지녔고, 반가에서는 손님 접대인 빈례를 중히 여겨 주부는 술을 빚고 안줏거리를 준비해놓았다가 손님이 오면 주안상을 정갈하게 올렸다. 조선시대 음식책은 현재 30여 종이 남아 있고, 대개 주부가 필자다. 주부들이 딸이나 며느리에게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술과 음식을 전해주려고 쓴 것인데, 그중에는 고운 심성과 정성, 기원이 그대로 담긴 운치 있고 품격 있는 음식이 많이 나온다. 또 음식 이름에서는 멋과 풍류가 넘친다.

정월 대보름날 농사의 풍요와 복을 기원 하는 '복쌈', 삼키기 아까울 정도로 맛있다는 '석탄병', 눈 오는 밤 친구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설야먹적', 절묘한 맛이 기생보다 음악보다 더 낫다는 '승기악탕', 경기 광주에서 보낸 국이 새벽 종이 울릴 때쯤 서울 재상의 집에 도착한다는 '효종갱', 입을 즐겁게 해주는 '열구자탕', 여러 재료가 꽃처럼 화려하게 얹혀있어 '화반'이라 부르는 비빔밥... 이 얼마나 멋들어진 이름인가.

일반적으로 한국 음식의 이름은 조리법 앞에 주재료를 붙인다. 예를 들면 쌀밥, 미역국, 배추김치, 갈비찜 같은 것이다. 여기에 더 정확하게 간을 내는 재료가 음식 이름 사이에 들어간 경우는 두부 젓국찌개, 호박 고추장찌개, 병어 고추장구

이 등이다. 주재료가 분명치 않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 갈 때는 잡채자를 붙여서 잡곡 밥, 잡탕, 잡채, 잡누름적, 잡과병 등이라 했다. 또 생김새에 따라 이름 붙인 음식으로는 고기를 넓적하게 저며 썰었다고 너비아니, 깎둑깎둑 썰었기에 깎두기, 나박나박 썬 무로 담은 나박김치, 오이에 소를 넣은 오이소박이, 나물을 고루 비벼 먹으니 비빔밥이라 했다.

우리 조상은 입에 들어가는 것은 몸에 약이 된다는 '약식동원 藥食同源' 사상이 있어 음식을 귀하게 여겼고, 먹을 때도 예의를 갖추어 품격 있게 먹었다. <규합 총서>에는 사대부가 음식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피라는 구절이 나온다. '첫째로 이 음식은 같고 심고 거두고 찢고 까불고 지지는 공이 많이 든 것이니 힘듦의 다소를 헤아리고,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 둘째로 대덕 大德을 헤아려 섬기기를 다하라. 셋째로 좋은 음식을 탐내고 맛있는 음식은 찜그리고, 배불리 먹을 타령을 말라. 넷째로 좋은 약으로 알고 형상 刑相의 괴로운 것을 고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업을 이루어놓고서야 음식을 받아 먹으라'고 이른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 이후 외식업계가 성장하여 이제는 세계에서 식당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경기가 침체 되면서 오히려 식당 이름은 더 자극적으로 짓고 메뉴는 점차 맵고 뜨거운 음식 일색에다 즉석에서 굽거나 끓이는 음식이 많아졌다. 길거리 식당의 간판에는 뼈다귀, 소머리, 머릿고기, 껌데기, 닭발, 곰창, 막창, 족발, 갈비, 삼겹살, 오겹살 등 육류의 원천적 부위가 한 치의 꾸밈도 없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또 식당 이름 앞에는 '원 조' '정통' '진짜' '대박' '왕' '막' 자 등이 붙어 있다. 상 가운데에 불판이 있어 석쇠, 철판, 돌판, 구들장이 동원되거나 전골냄비와 돌솥, 독배기, 양푼 까지 올라간다.

'효종갱'과 '뼈다귀해장국'을 비교해보자. 효종갱은 먹을 때 아마 그 유래를 떠올리고 먼 데서 끓여 온 정성을 생각하면서 청결한 곳에서 품위를 갖추고 먹어야 할 듯하고, 뼈다귀해장국은 지저분한 허술한 집에서 급히 먹어치울 음식이 연상된다. 거친 말을 쓰면 행동이 거칠어지고, 고운 말을 쓰면 자세가 공손해진다. 지금 세계는 음식 문화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도 국가적으로 한식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수단이며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여 '한식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요즘의 거친 음식이 과연 우리의 음식 문화로 품격을 지녔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시점이다.

요즘 방송에서 인기인들이 음식을 맛보면서 '담백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담백 淡泊이란 아무 맛이 없이 싱거운 것을 이르는 말로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옛 책에는 '맛이 아름답다' '맛이 절미 絶美 하다' '맛이 절가 絶佳 하다' '맛이 달고 향긋하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 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덧생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갤러리: (505)-764-1900 휴대전화: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다(甘香)' 등 고운 표현이 나온다. 궁중에서 '절미된장조치'는 '맛이 비할 데 없이 매우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겉작의 된장찌개인 셈이다.

이제 우리는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음식을 표현하는 마음과 음식을 대하는 조상들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옛 음식 책에는 공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별미 음식이 많이 나온다. 요즘 시중의 맵고 거친 음식이 세계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미덕을 느낄 수 있는 정성 들인 음식이야말로 분명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이다.

글 한복진(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전통음식문화전공 교수)



(왼쪽) 눈 오는 밤에 친구 찾아가 만난 고기국이 설야먹적

너비아니구이(불고기)의 원조격인 음식으로, 쇠고기 등심을 넓고 길게 저며 썰어서 꼬치에 꿰 후 양념을 발라 구운 것이다. <산림경제>와 <규합 총서>에는 '설야먹 적雪夜覓'이라고 소개되었고, <해동죽지>에는 "설야적 雪夜炙은 개성부에 예부터 내려오는 명물로, 쇠갈비나 염통을 훈채로 조미하여 굽다가 반쯤 익으면 냉수에 잠깐 담갔다가 센 숯불에 다시 구워 익힌다. 눈 오는 밤의 술안주에 좋고 고기가 몹시 연하여 맛이 좋다"라고 써어 있다. 또 19세기 학자 조재삼이 쓴 <송남잡지 松南 雜識>에는 송 태조가 눈 오는 밤(雪夜)에 진풍을 찾아가니(覓) 숯불에다 고기를 굽고(炙) 있더라. 그리하여 이 구운 고기에 '설야먹적'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이 붙게 되었다. 스테이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내공이 깊은 우리의 너비아니구이.

* <산림경제 山林經濟>(1715년)_조선 숙종 때 실학자 홍만선이 농업과 일상 가정 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소백과 사전적인 책.

* <규합총서 閨閣叢書>(1809년)_빙허 각 이씨가 쓴 한글판 생활 경제 백과사전으로 의식주 관련 문제 들을 정리, 체계화했다.

(오른쪽) 맛이 뛰어나니 기생이나 음악보다 낫구나 승기악탕

<조선요리학>에 승기악탕의 유래가 기록돼 있다. 조선 성종(1479~1494) 때 오랑캐가 함경도 일대를 수시로 침입하여 백성을 괴롭혔는데, 이를 방어하고자 조정에서는 허종 許琮에게 의주에 진영을 두고 국경을 수비하게 했다. 허종이 의주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환영하는 뜻에서 도미에 갖은 고명을 얹어 정성껏 만들어 바쳤다. 허종이 그 음식 의 이름을 물으니 아직 이름이 없다고 말하자 그가 '음식 맛이 뛰어나(勝) 기녀(妓)와 음악(樂)보다 더 낫다'는 뜻으로 '승기악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또 <해동죽지>에는 '승가기 勝佳妓'라는 이름으로 나오며, 본디 해주의 명물로, 서울의 도미면과 같은 것이 라고 적혀 있다. 승기악탕은 송어 또는 도미, 조기 등을 구워 냄비에 담고 쇠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 고명을 함께 넣은 뒤 육수를 부어 끓

인다. 깊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며, 국수나 흰떡을 넣어 먹기도 한다.

* <조선요리학>(1940년)_홍선표가 국한문혼용으로 출간한 음식 책.

* <해동죽지 海東竹枝>(1921년)_최영년이 쓴 시집. 우리나라의 역사·풍속·지리·명승·고적 등에 대해 읊은 500여 편의시를 수록했다.

입이 즐거워지는 탕이로구나 열구자탕

일반적으로 '신선로 神仙爐'라 널리 알려진 이 궁중음식의 원래 이름은 '입을 즐겁게 해주는 탕'이라는 뜻의 '열구자탕'이다. 신선로는 '신선이 드시던 화로'라는 뜻의 그릇 이름. '신선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동국세시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열구자탕 그릇'이라고 했다. 궁중의 연회 중 1827년 잔치 기록에 열구자탕이 처음 나온다. 열구자탕은 신선로 맨 아래에 쇠고기를 채 썰어 양념한 것을 넣고(혹은 고기에 무를 섞어 곤 것을 함께 썰어 넣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어육과 채소를 색스럽게 둘러 담은 뒤 쇠고기 맑은 장국을 붓고 중앙에 있는 노爐에 숯불을 담아 끓이면서 먹는다. 궁의 수랏간에서는 아랫사람이 밀준비를 다 해주면 조리하는 사람 중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찬방에 앉아 신선로를 '꾸몄다'. 오색을 갖춘 각각의 재료가 어우러져 또 하나의 음식으로서 예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대표적 궁중 요리로 신선로를 끝내는 것은 색깔과 그릇이 예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의 맛이 녹아 깊은 맛을 내기 때문이다.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이보다 더 호사스러운 음식이 또 있을까?



*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1849년)_조선 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가 지은 세시 풍속서로, 한국 고래의 연중행사과 풍습을 12개월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 책.



(왼쪽) 신께 쌓아 올려 복과 풍년을 비나니 복쌈

정월 대보름은 한 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다. 이날은 오곡밥과 아홉 가지 묵은 나물을 먹고, 부럼을 깨며, 복쌈을 싸 먹는 풍속이 있다. 복쌈은 넓은 취나물이나 구운 김, 배추 잎 등

으로(개성 등지에서는 들깻잎으로) 밥을 싸 먹는 것으로, 한자로는 복과 福 또는 박점 縛占, 복포 福包라고 한다. 여러 개를 싸서 그릇에 베탄 쌀듯 높이 쌓아 성주 신에게 올린 다음 먹었는데,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고 믿었다. 이때 쌀을 베탄처럼 높이 쌓는 것은 그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른쪽) 새벽종 칠 무렵 서울에 도착하는 해장국 효종갱

‘효종曉鐘’은 새벽에 치는 종을, ‘갱羹’은 국을 의미한다. <해동죽지>에 ‘효종갱’이라는 낱선 이름의 음식이 나온다. 이 책에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廣州 남한산성 내 사람들은 효종갱을 잘 끓인다”라고 써어 있다. 배추숙대, 콩나물, 송이버섯, 표고버섯, 쇠갈비, 해삼, 전복 등을 토장에 섞어 종일토록 푹 곤 뒤, 밤에 이 국 향아리를 솥에 싸서 서울로 보내면 새벽종이 울릴 때쯤 온기를 품은 채로 재상의 집에 도착하는데 이 국이 해장에 더없이 좋다고 했다. 해장국 치고는 재료가 눈부시게 호화롭다. 그 시절 서울 양반들이 숙취 해소와 보양을 위해 멀리서 배달 시켜 먹던 최고급 해장국인 셈이다.



떡이로다 얼마나 맛이 좋으면 ‘차마 입에 삼키기(呑)가 아까운(惜) 떡(餅)’이라고 했을까. 석탄병은 임금의 생신 때 고관대작의 집에서 만들던 귀하고 격이 높은 떡 가운데 하나다. <진찬의궤> <규합총서> <부인 필지>에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단단한 감을 저며서 말렸다가 쌀가루와 반씩 섞어 잣가루, 계핏가루, 대추, 황를을 섞고 거피팔이나 녹두 고물을 켜켜이 뿌려 안쳐서 찐 시루떡이다. 감가루가 들어가 은근한 단맛이 나며,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 영양가도 높다. 계피와 유자 향이 좋고, 감 가루의 단맛과 잣가루의 고소한 맛이 잔잔하게 어우러져 맛이 깊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한 입 먹고 싶어지는 떡이다.

* <진찬의궤 進饌儀軌>(1901년)_조선 후기 궁중에서 왕, 왕비, 왕대비 등에게 진찬한 내용을 기록한 책. 조선 후기 궁중 향연의 의식을 알 수 있다.

* <부인필지 夫人必知>(1915년)_방신영이 가정생활에 긴요한 것을 광범위하게 쓴 책.

[출처] 행복이 가득한 집 (2010년 2월호) | 기자/에디터 : 구선숙 / 사진 : 김정환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욱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uquerque, NM 8711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6)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츄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i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87199
(408-334-7227)

샌타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B35 ABQ,
NM 87111
(505-296-0336)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E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구인/구직

렌트/부동산

룸 렌트 (Room Rent)
Now available 2 rooms
of 3 bedroom
Rent: \$300
Deposit: \$100, Utility
divided by using
room number no
smoking, no pet
(505) 352-5775
(505) 331-8607

사고/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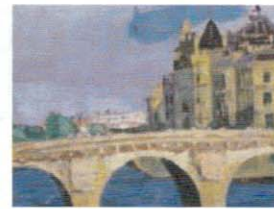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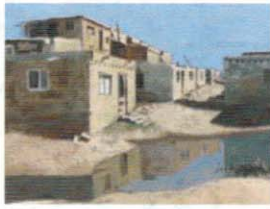
도와주세요

정보마당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알버커키 감리교회 김수영권사님(www.youngsookpark.com) 박영숙 집사님(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 작품들입니다.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505) 828-4773 WWW.KUMCABQ.COM



To:

stamp
우표

